# [논평] ‘ ’의 학문적 정체성 탐색: 종교심리학과 교육학의 통합모형

임정연(한성대학교 책임연구원)

본 연구는 ‘인성교육’의 학문적 정체성을 규정하기 위해, 그 개념 속에 전제된 ‘인간’과 ‘기른다’는 의미를 학제간(interdisciplinary) 접근을 통해 명료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제간 접근의 모델로 폴 투르니에(Paul Tournier)의 ‘기독교 심리학’을 소개하고, 그 교육학적 의의를 밝혔다.

본 연구는 인성교육의 학문적 정체성을 탐색하면서 종교와 심리학의 만남인 ‘기독교적 심리학’과 ‘교육학’의 접목이라는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신선하다. 또한 인성교육을 법으로 제정하여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인성’과 ‘인성교육’, 그리고 인성교육의 학문적 정체성을 탐색하는 일은 현행 인성교육의 문제를 반성하고 바람직한 인성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토론자는 본 연구의 교육학적 가치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목적은 인성교육의 학문적 정체성을 탐색하고 바람직한 인성교육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종교심리학과 교육학의 ‘통합모형’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교육받는 대상인 ‘인간’, 그리고 ‘인성을 기른다’ 혹은 ‘인격을 완성한다’는 것의 의미를 폴 투르니에의 기독교적 심리학을 통해 보다 명료하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투르니에의 아이디어는 인간을 전인격적 존재로 규정하고, 기독교 정신과 심리학적 통찰을 균형있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성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데 상당히 유익하기는 하지만, 현재의 논의가 폴 투르니에의 기독교적 심리학에 대한 이해와 그것이 가지는 교육학적 의의를 밝히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이 다소 아쉽다. 이에 토론자는 종교심리학과 교육학의 통합모형이라는 부제 대신에 ‘투르니에의 기독교적 심리학이 인성교육에 주는 교육학적 함의’와 같이 수정해보는 것은 어떨지 조심스레 제안을 해본다.

둘째, 본 연구는 ‘인성교육진흥법’의 시행을 계기로 ‘인성’과 ‘인성교육’에 관련된 일련의 물음에 답하고 인성교육의 학문적 정체성을 탐색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실지로 필자는 서론에서 인성교육 연수와 전문 인력 양성은 어느 학과에서 담당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인성교육의 학문적 정체성을 규정할 때 자연스럽게 대답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글의 논지에 따르면 투르니에의 기독교 심리학에 입각한 인성교육의 학문적 정체성은 기독교 심리학과 교육학이 결합된 융합학문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만일 토론자의 이해가 틀리지 않다면 지난 7월 인성교육진흥법이 발효되어 유치원은 물론 초중고교가 의무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